

곡성군, 농가별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지원 나서

스토리가 있는 자신만의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개발 시우디자인센터 노시우 대표 초청...농가 경쟁력 강화

곡성군이 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강소농 브랜드개발 전문과정 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 규모의 농업경영체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에는 지난해 곡성군에서 진행한 경영개선실천 기초과정을 이수한 12명의 강소농이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출하, 소비자 직거래 등이 많은 강소농과 청년 농업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이 없어 홍보나 판매에 아쉬움을 느꼈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품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인 만큼 곡성군은 농식품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자인 시우디자인센터 노시우 대표를 강사로 초청했다. 특히 일대일 컨설팅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각 농가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 장단점, 환경 등 농가 개별 스토리를 기반으로 고객의 감성에 맞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포장 디자인을 구상하게 된다. 명함 디자인에서부터 상품 포장 디자인은 물론 상표 출원까지 배울 수 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상품 브



랜드를 전시하고 설명하는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으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곡성군 농특산가공품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장성군,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훈수당 2배 인상

장성군이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금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장성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에우대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 원을 확보했다.

장성=기동휘제본부



구례군, 고령농업인 위한 감 전정 지원 한창

65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대상...98농가 37.5ha 전정기술 지원

구례군은 고령 감 재배 농업인에게 전문 전정 인력을 지원하여 고품질 구례 감 생산 지도에 한창이다.

겨울철에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내는 작업인 전정은 숙련된 전문가가 맡아야 상품성을 높일 수 있으나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구례군의 고령농업인 감 전정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대상이며, 선정 농가에게는 전정지원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군은 전문 전정지원단 2개 팀 15명을 구성하여 98농가 37.5ha에 전정 기술을 지원한다.

고령이거나 여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자가 전정이 어려운 농업인이 적기에 전정을 완

료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전정기술이 부족한 농업인에게는 현장에서 핵심 전정기술 지도를 병행한다.

한편, 고령농업인 감 전정 지원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3년간 151농가 76ha 660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정 지원을 매실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전정지원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에 대비와 같은 사업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겠으며, 더불어 구례군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작년 대설 피해농가 복구 속도

재난지원금 1억6850만원 확정

나주시가 지난 해 연말 대설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21.5cm의 폭설로 전체 38농가에서 시설하우스 철골 구조물 무너짐, 축산시설 파손, 농작물 동사 등 총 7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산포면(16농가), 남평읍(15농가)이 가장 많았으며 문평·노안·금천·다도면 등 7개 읍·면에서 농작물 5.9ha, 농림·축산시설 2.4ha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고 모두 사유시설로 재산피해 총액은 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된 사유시설 피해 농가·시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총 1억685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은 국비 50%, 도비20%, 시비 30%재원으로 농림·축산시설은 총 피해규모의 35%를, 농작물의 경우 50%를 지원한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군, 천년고찰 봉은사와 농특산물 소비 촉진 손 잡았다

담양군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총회의장 양용호)은 10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봉은사(주지 원명스님)와 역사 문화 교류와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담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추천과 품질관리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봉은사의 역사, 문화가 가진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협력하며,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고품질 브랜드 쌀(대숲맑은 담양 쌀)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봉은사는 담양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구매와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사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봉은사에서 담양 농특산물 판촉전을 일주일 간 개최해 소비 촉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 도심 속 전통문화 사찰인 봉은사는 서울 시민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대표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대중 포교활동은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쳐 오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농업용 드론 교육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물꼬 튼다

27일까지 교육생 모집...2월 7일 시작

화순군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 10명을 2023년 1월 6일(금)부터 1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이하 교육)은 ▲주민등록상 화순군 주소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 ▲3년 이상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청년농업인(만 49세 이하)의 경우 2년 이상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신청은 화순군청 누리집 열린군정(고시공고) 또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열린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2층 역량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10명의 교육생은 3월 상순에 예정된 드론 자격증 취득 시험일에 맞춰 2월 7일부터 약 3주간 60여 시간의 이론교육, 모의비행, 비행 실기연습 등의 교육을 받는다.

화순=박순철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